

“스스로 배우는 학교공간 실험”

‘안애경의 예술창고’ 14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폐의자·책상 작품 변신...‘과정 보여주는 전시’ ‘복유럽 학교’ 출간...봉주초 리노베이션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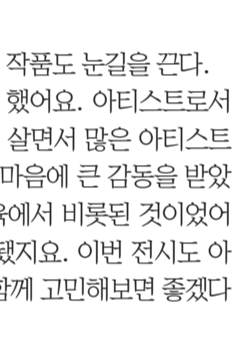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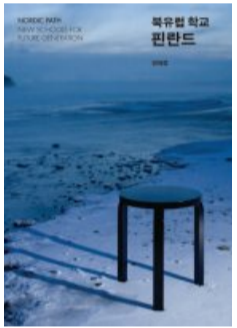
지난 1월, 전시를 시작하며 그는 갤러리 벽면을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칠했다. 그 앞에 설 때면 핀란드의 어느 숲속이 떠오르며 웃었다. 갤러리 생각상자(광주시 동구 남문로 628)에서 전시 ‘안애경의 예술창고 Wild Child’ (14일까지)를 시작할 때 전시장은 텅 빈 공간이었다. 20여일이 지나고 1월 말 찾아간 전시장은 마치 작가의 작업실처럼 느껴졌다. ‘작품’이 된 낡은 의자와 책상 등이 가득했고 작업용 사다리, 각종 물감과 수습개의 붓, 그녀가 듣는 CD와 커피 드립 기구 등이 무질서하게 놓인 공간은 재미있는 작업이 펼쳐지는 원더랜드 같았다. 전시는 빈 공간에서 시작해 한달 동안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독특한 프로젝트다.

안애경은 ‘복유럽 디자인 문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다.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핀란드로 건너간 그는 일찍이 ‘핀란드 디자인 산책’ (2009) ‘복유럽 디자인’ (2011)을 집필했고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의 복유럽문화 전시를 기획했다. 지금은 핀란드에 거주하며 한국과 복유럽을 잇는 국제 교류 프로젝트에서 큐레이터, 아티스트, 아트디렉터로 활동 중이다.

당초부터 평범한 전시는 사양이었다. 오랫동안 만나온 생각상자 갤러리 큐레이터 주홍 작가의 초대 받은 그는 전시를 시작하며 버릴 물건들을 가져다달라고 요청했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폐기 직전의 의자와 탁자, 책상 등을 보내왔다. 다양한 색을 입혀 낡은 의자는 아이들이 누구나 앉고 싶어 할 멋진 의자로 변신했다. 자투리 천을 자르고 엮어 만든 멋진 의자 덮개, 종이, 풀, 끈 등으로 제작한 설치 작품도 눈길을 끈다.

“제안을 받았을 때 갤러리를 작업실처럼 쓰겠다고 했어요. 아티스트로서 내가 돋보이는 작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핀란드에 살면서 많은 아티스트들을 만났고 그들의 겸손함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삶의 태도는 그들이 오랫동안 받은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그 때부터 학교와 교육의 중요성을 늘 생각하게 됐지요. 이번 전시도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변모시킬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그의 학교에 대한 관심은 최근 경기도 오산 ‘놀이공간 나무처럼’ 프로젝트 참여와 ‘복유럽 학교 핀란드’, ‘복유럽 학교 노르웨이’ 출간 등으로 이어졌고 현재 광주 봉주초등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아트디렉터로 참여 중이다. 봉



14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안애경의 예술창고 Wild Child’을 여는 안애경 작가는 버려진 의자 등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작품을 전시 중이다.



옛날 건물 부수지 말고도 합시다. 무조건 부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거저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교 공간 자체가 일방적이예요. 자유롭게 놓아두면 스스로 배우는 게 아이들이죠. 그걸 학교가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단도, 보도블록도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노동의 경험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색깔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에 학교를 전편일률적으로 칠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복유럽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일까. “디자인은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하죠. 그들은 지극가능한 디자인, 대를 물리는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복유럽의 경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 안전한 디자인이 먼저였습니다. 복유럽의 디자인은 엄청난 연습 과정을 통해 다같이 공유하고 평준화됐죠. 돈 있는 사람이 즐기는 게 디자인이 아니예요. 오히려 돈이 없으니 디자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차별이 없고, 인권 존중 등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공교육을 통해 완성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단순히 이론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이 되는 과정을 학교에서 배우는 거죠. 복유럽의 아티스트와 시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모두 이런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겁니다.”

오는 8일효동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헌옷을 활용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는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학교라는 공간, 우리 삶의 공간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버려진 천 조각으로 만든 작품

“플루트와 기타의 만남 즐기세요”

플루티스트 정은지 독주회 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광주시립교향악단 플루트 수석 단원으로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정은지가 3년만에 독주회로 관객과 만난다. 이번 연주회는 특히 플루트와 기타의 만남으로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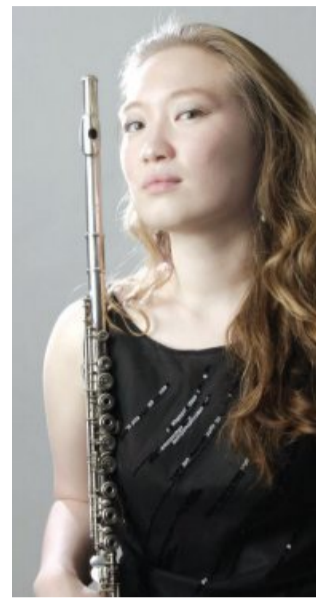
정은지의 ‘플루트 이야기 Series II’ 가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서울대 음악대학 기악과를 졸업한 뒤 영국 왕립음악원에서 윌리엄 베넷 교수를 사사하며 석사학위를 받은 정씨는 홍콩 PURE 오케스트라 센터 초빙교수, 싱가포르 플루트 페스티벌 콩쿠르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다양한 무대에 올랐으며 2016년부터는 광주시향 수석단원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기타리스트 한은

이번 공연은 지난 2019년 선보인 ‘플루트 이야기 Series I’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다. “해마다 독주회를 열어왔었는데 이렇게 공백이 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공연도 지난해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취소됐었죠. 그래서 그렇지 무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향 실내악 시리즈를 통해 플루트 리사이틀을 열기 했지만 아쉬움이 컸어요. 오랜만의 리사이틀이라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정씨는 오랜만에 여는 독주회인 만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 ‘기타와의 춤곡’을 부제로 빌라 로



플루티스트 정은지

보스, 피아졸라, 폴랑크, 바르톡 등 19세기에 활동했던 작곡가들의 곡을 플루트와 기타 연주로 선보이는 것.

레퍼토리는 빌라 로보스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리아 칸틸레나’, 피아졸라 ‘탱고의 역사’, 바흐 ‘소나타 6번 D장조 BWV 1012’, 폴랑크 ‘세 개의 무궁동’, 바르톡 ‘루마니아 민속 무곡’ 등이다.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헝가리 등 국적은 다르지만 동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의 작품 중 춤곡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분위기 환기를 위해 2부 첫 곡으로는 바흐의 작품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흥겨운 곡들을 들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만큼은 힘겹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게스트로는 기타리스트 한은이 무대에 오른다. 한 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 중 스페인 유학길에 올라 오스카 에스플라 음악원 최고 연주자과정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악대학원을 졸업했다.

정씨는 “플루트와 기타의 음색이 잘 어울려 기대가 된다”며 “플루트와 기타의 색다른 매력을 즐기면서 원곡과 비교도 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에 또 다른 특별한 리사이틀로 관객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 독주회가 끝나면 올해는 광주시향 공연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캡스톤디자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진행

광주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디지털뉴딜 촉진과 청년 일자리창출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캡스톤디자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중소 제조·서비스 분야의 ‘디지털뉴딜’ 촉진을 위해 청년과 산업체 간 일자리를 매칭, 1인당 인건비로 월 160만원(200만원 기준 80%, 기업부담 20%)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자격요건은 디지털 디자인 분야 중소기업과 디지털 디자인 분야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또 ‘광주 5대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광주 ‘5대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당 성장지원금 1500만원, 2차년도에는 고용 창출비 1인당 월 18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자격요건은 광주시 소재 5대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의 7년 이내 창업 청년으로 39세 이하 직원을 채용한 기업이 해당된다. 마감은 다음달 14일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